

이 임 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김 은 영



갑술년을 맞아 회원 여러분께서 하시는 학업과 연구에 큰 성과가 있으시기를 바라며, 가족에게도 행운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고분자학회를 큰 탈없이 운영할 수 있었던 것은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였으며, 이에 임원진을 대신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볼 때 가장 두드러진 것은 그 동안 한국고분자학회의 숙원이었던 영문지 「*Korea Polymer Journal*」의 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고분자학회도 이제 명실상부한 국제적인 학회로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와 사랑이 기대됩니다.

지난 해에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두번의 학술발표 및 총회, 고분자 기기 분석세미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2월에는 고분자아카데미, 7월에는 산학연심포지움, 9월에는 한중 고분자심포지움이 처음으로 개최되었는데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또한 한민족 종합학술대회에서 고분자가 독립 session으로 개최되어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의료용 고분자를 전공하는 전문인들의 모임인 “의료용 고분자 연구부문위원회”가 고분자학회의 두번째 부문위원회로 창립되었으며, “고분자 실험” 교재가 발간되었고, 임대해 준 사무실을 확장하여 학회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995년은 한국고분자학회의 창립 20주년이 되며, IUPAC의 심포지움(MACRO '96)이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데, 본인이 조직위원장으로, 고려대학교의 진정일 교수가 학술위원장으로, KIST의 김광웅 박사가 사무국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따라서 MACRO '96을 훌륭하게 치뤄 한국고분자학회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본 학회의 새 회장으로 취임하신 한만정 교수님은 그동안 학회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오셨으며, 학문적으로도 매우 존경을 받으시는 분으로 학회를 위해 좋은 일을 더 많이 하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울러 임원진 여러분에게도 격려를 드립니다.

끝으로 그동안 학회일을 실제로 담당하신 김영하 전무이사 및 간사진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뜻을 보내고, 회원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빕니다. 감사합니다.